



곽동연, 채수빈, 박보검, 김유정, 진영 (왼쪽부터)

# 내시 된 여인, 왕세자와 알콩달콩 로맨스

###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 오늘 밤 10시 첫 방송

“머 하는 게냐. 열근 내리지 않고.” 영감결에 남장을 한 채 궁궐 내시부 관원으로 들어오게 된 홍라온은 바지를 내리라는 내시부사의 명이 떨어지자 혼비백산한다.

능청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남장여자 내시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 내시부에 자리잡고 꽃미남 왕세자까지 꺾어차게 될지 벌써부터 호기심이 앞선다.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은 조선 후기 궁궐을 배경으로 한 왕세자와 남장여자 내시의 색다른 로맨스 그린 사극이지만 감각적인 영상과 에피소드들은 첨단 멜로물 못지않게 현대적이다.

부모도, 돈도, 집도 없는 홍라온은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 옛날부터 사내로 살아왔다. 그런 홍라온이 어쩌다 궁궐 내시부로 흘러들어 좌충우돌 소동 끝에 왕세자의 마음을 흔드는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즐거이다.

배경이 되는 조선 말기 쇠락해가는 왕조를 둘러싼 정치적 암투도 이야기의 다른 축이다.

홍라온은 아역 스타 출신 배우 김유

정이 연기하고, 상대역인 왕세자는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오른 박보검이 맡았다.

연출을 맡은 김성운 PD는 1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예쁘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슬픈 로맨스를 연출하는데 포인트를 줬다. 특히 남장여자는 많이 봐왔던 소재라 지금의 트렌드와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효명세자 이영의 캐릭터를 원작과 다르게 변주했다. 트렌드에 맞게 ‘츄데레’(겉으로 통명스럽지만 속은 따뜻한)라는 뜻의 신조어)한 캐릭터를 입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작가 윤이수의 인기 있는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구르미 그린 달빛'은 비운의 인물인 효명세자를 모티브로 삼았다.

효명세자가 1809년에 조선 23대 왕 순조의 맏아들로서 태어나 3살에 왕세자로 책봉돼 8살에 성군관에 임학하고 10살에 풍양 조씨(조대비)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부왕 순조의 건강 악화로 18살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국사를 돌보는 데

리청정을 했는데, 여러 당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견제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도,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한 채 21살의 이른 나이에 병사했다.

'구르미 그린 달빛'의 이야기는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기 직전 시기부터 시작된다.

지상파 드라마 주연 데뷔작에 임하는 배우 박보검(23)은 진지하고 각오가 남달랐다.

그는 “캐스팅됐을 때 부담이 없지 않았다. 처음에는 혼자 생각에 갇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 작가, 스태프, 배우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했다.

박보검은 아직 나이가 어린 김유정(17)을 주저 없이 연기 선배로 부르며 예를 갖추기도 했다.

“김유정은 연기로 선배이고 사극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연기할 때는 저보다 선배고 성숙해서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더라. 때리거나 밀치거나 할 때도 편하게 하라고 했다.”

“구르미 그린 달빛”에 대해선 “‘청춘 테라피’라고 말하고 싶다. 많이 힐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정은 “홍라온은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다. 그런 사랑스럽고 깨물어 주고 싶은 만큼 귀여운 느낌이 저한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이 극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다른 관심 포인트다. 궁궐 내 궁기의 장소인 내시부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극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 10시 첫 방송 하는 '구르미 그린 달빛'은 가볍게 출발하지만 가볍지만은 않다.

김성운 PD는 “거창한 메타포는 없다.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메시지다. 정치적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거나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생각이다. 경쾌하고 유쾌하고 발랄한 젊은 사극을 지향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 리우 올림픽 시청률·광고 저조 지상파 한숨



저조한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시청률 때문에 지상파 방송 3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평균 시청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 것으로 보여 중계권료 보다 광고판매액이 낮아 해당 방송사들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인 닐슨코리아의 데이터(20일 현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전국 시청률 합계가 30%대에 이른 경기는 여자 양궁 개인 16강전과 남자 축구 8강전뿐이다.

최미선이 러시아의 이나 스테파노바를 꺾은 양궁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시청률이 36.0%(재방송 포함)로 가장 높았다.

또 장혜진이 북한 강은주를 이기고 8강 티켓을 쥔 경기는 31.0%를, 기보배가 미얀마의 산유위를 따돌리고 8강행을 결정짓는 경기는 30.4%를 기록했다.

한국 대표팀이 은두라스에 아쉽게 패한 남자 축구 8강전 시청률은 30.5%를 기록했다.

이밖에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여자 배구 조별예선 1차전(시청률 29.8%), 손연재의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27.3%), 네덜란드에 진 여자 배구 8강전(26.8%), 김중현이 은메달을 딴 사격 남자 50m 소총복사 결승전(25.4%)이 20%대 시청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평균 시청률이 30%를 웃돌았던 역대 올림픽에 한참 못 미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평균 시청률은 34.2%였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32.0%, 2004년 아테네올림픽은 31.5%였다. 2000년 이후 시청률이 가장 낮았던 2012년 런던올림픽도 평균 시청률이 23.1%였다. 올림픽 시청률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시차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이 열린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와 한국의 시차는 12시간으로 주요 경기 중 상당수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과 심야에 열렸다.

시드니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은 한국과 개최지 간의 시차가 1시간이었고 아테네올림픽은 6시간, 런던올림픽은 8시간이었다.

그나마 초반에는 비교적 높았던 올림픽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반 이후 매달 소식이 뜸 끊기면서 눈에 띄게 하향곡선을 그렸다.

한국은 현재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총합 21개로 올림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런던올림픽 때는 총 28개,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총 31개, 아테네올림픽은 총 30개였다.

전체 메달 수가 21개로 과거 올림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런던올림픽 때는 총 28개,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총 31개, 아테네올림픽은 총 30개였다.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저조한 시청률 때문에 이번 올림픽 중계에서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초반까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올림픽 중계방송 광고 판매액은 사별로 60억원, 총 1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올림픽 기간에도 광고판매액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매액은 올림픽이 폐막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올림픽에서도 사별 광고 판매액이 100억원은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번 올림픽 중계권료는 440억원이다. 관측대로라면 광고 수익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영상앨범산(재) 4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30 2016 리우올림픽 폐막식	00 광주 MBC뉴스투데이 30 리우 2016 올림픽 폐막식	10 KBC 모닝와이드 30 리우 2016 올림픽 폐막식
8	25 아침마당			
9	30 KBS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한민족의 소리 스페셜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우진 찰스(재)	00 살만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연속극 <여자의 비밀>(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나홀로 세계여행 2(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감성애니 하루		10 100세시대 전국기행 스페셜(재)	50 유럽의 해안선 55 TV블로그 골지락
2	00 2016 리우 올림픽 폐막식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지환	00 MBC 뉴스 10 10 똑?똑! 키즈스쿨 55 캐미캠원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수상한 휴가(재)	00 MBC아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피리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올림픽 기획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6 리우 올림픽 결산특집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2	40 교육희망프로젝트 배움은 놀이다	35 사랑의 가족	10 MBC 뉴스 24 30 스포츠 특선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베스트

## EBS1

05:00 EBSe 생활 영예	09:30 원더볼츠	<스포츠 키즈 - 치어리더>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팔방미인 며느리를 바라는 시어머니>
05:30 건강은 아침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속 터져도 내 자식 그 후 이야기>	13:35 EIDF 2016 <무인 전쟁>	20:40 다큐 오늘 <고비 사막의 생생낙타 대회>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제철소의 안전지킴이 기계장비 김석준>	10:30 한국기행(재)	14:35 EIDF 2016 <넘겨진 교실>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바다 정원, 플라워 시어스 록 아일랜드>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단체'신곡, 위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보은의 오징어 냉채와 오징어다리 어묵조림>	16:00 캐니멀(재)	21:30 EIDF 2016 <내추럴 디스오더>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대자연의 황상곡, 노르웨이를 달린다 - 한여름의 빙하여행>	16:30 코코코 다코	23:15 EIDF 2016 <하늘을 향한 여정, K2>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 1~3(재)	24:35 EIDF 2016 <아버지와 벨로 나>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10 EIDF 2016 <학교 가는 길>	17:30 로보카 폴리(재)	
08:00 당동당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18:00 생방송 특독! 보니하니1~4	
09:00 캐니멀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2일 (음 7월 20일 丙子)

子	48년생 전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60년생 가급적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상책이다. 72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뒤집혀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다. 행운의 숫자 : 09, 26	午	42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팽팽이 있다. 54년생 획기적인 발전성이 있어 보이니 수용한다면 유익하다. 66년생 중용을 유지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78년생 원칙에 따라서 똑바로 체계를 세울 때이다. 행운의 숫자 : 99, 40
丑	49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61년생 대응하기에 용이한 성국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73년생 지금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목이다. 85년생 재조명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0, 07	未	43년생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의 교류가 있을 것이다. 55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67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리라. 79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2, 29
寅	50년생 표면화시킨다면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62년생 전혀 딴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74년생 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복잡다단한 국안이 부지런히 정거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57	申	44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6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68년생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승두리해 흔들릴 것이니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80년생 인식의 변화의 폭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4, 70
卯	51년생 중요한 일임으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63년생 진땀을 뺀서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75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8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니 빨리 청산 하자. 행운의 숫자 : 84, 43	酉	45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7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하노라. 69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숙고해 볼 일이다. 81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차 확대일로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24, 15
辰	40년생 원리 원칙대로 대처해야만 한다. 52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본궤도로 진입하도록 하라. 64년생 발전적인 이동수이다. 76년생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88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23, 86	戌	46년생 미리 서둘러야 한다. 58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느니라. 70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82년생 원칙과 예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책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75, 55
巳	41년생 급속스런 변화가 보인다. 53년생 양상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65년생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풀이다. 77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89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방 날려도 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90, 36	亥	47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핵심 가치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71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에 놓인다. 83년생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 보자. 행운의 숫자 : 92, 7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